

목 차

간행사
해제
일러두기
참고도판

- 제 1편 양혜왕 상梁惠王上 /
- 제 2편 양혜왕 하梁惠王下 /
- 제 3편 공손추 상公孫丑上 /
- 제 4편 공손추 하公孫丑下 /
- 제 5편 등문공 상滕文公上 /
- 제 6편 등문공 하滕文公下 /
- 제 7편 이루 상離婁上 /
- 제 8편 이루 하離婁下 /
- 제 9편 만장 상萬章上 /
- 제10편 만장 하萬章下 /
- 제11편 고자 상告子上 /
- 제12편 고자 하告子下 /
- 제13편 진심 상盡心上 /
- 제14편 진심 하盡心下 /

제1편 양혜왕 상梁惠王上

1. 맹자孟子께서 양나라(원래는 위魏나라) 혜왕惠王을 만나셨는데, 왕이 말하였다.

“노선생老先生께서 천 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 대부大夫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할 것이니, 사士와 서인庶人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을 소유한 공경公卿의 집안이고, 천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百乘을 소유한 대부의 집안이니, 만에서 천을 가지며 천에서 백을 가지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義를 하찮게 여기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모두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仁하고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의義롭고서 자기 임금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따름이니,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2. 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만나셨는데, 왕이 못가에 서 있다가 크고 작은 기러기와 크고 작은 사슴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현자賢者도 이런 것을 즐거워합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현자인 뒤에야 이러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 현명하지 못한 자는 비록 이러한 것을 소유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시경詩經》 <영대靈臺>에 이르기를 ‘영대를 처음으로 계획하여 측량하고 재어보고 하자, 서민들이 와서 일하는지라 며칠 되지 않아서 완성되었다. 측량하여 짓기 시작하자 문왕文王께서 급히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서민들이 자식처럼 와서 도왔도다.

문왕께서 영유靈囿에 계시니, 사슴들이 그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도다. 사슴들은 살찌고 백조는 깨끗하도다. 문왕께서 영소靈沼에 계시니, 아, 연못 가득 물고기들이 뛰노는구나!’ 하였습니

다. 문왕께서 백성의 힘을 이용하여 대臺를 만들고 못을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대를 영대靈臺라 부르고, 그 못을 영소靈沼라 하면서 문왕께서 사슴과 물고기와 자라를 소유하신 것을 좋아하였으니, 옛사람들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기[與民偕樂] 때문에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경書經》 <탕서湯誓>에 이르기를 ‘이 태양은 언제나 없어질꼬? 내 너와 함께 망하련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임금을 미워하여 그와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비록 대와 연못과 새와 짐승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혼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3. 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과인寡人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河內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을 하동河東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옮겨가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곡식을 하내

지방으로 옮겨 구휼해주며,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자가 없는데도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더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등등 복을 쳐서 싸움이 시작된 후에 한쪽이 불리하여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는데, 어떤 자는 100보步를 도망간 뒤에 멈추고 어떤 자는 5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고서, 50보 도망간 자가 자신은 50보를 달아났다 하여 100보를 도망간 자를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五十步百步]”

“안 되지요. 다만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도망간 것입니다.”